**제목: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다.**

**과목**: 기독교 변증학 **분반**: 02

**학번**: 21800201 **이름**: 김현욱

도덕 논증은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함이 아닌 도덕성의 근원과 도덕규범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인가에서 시작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는 말 속에서 자유롭고 존엄하기에 개개인의 자율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그 기준을 법으로 정해준다면 도덕적인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각 국가 간의 기준 차이가 만들어오는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도덕’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증 방식이었다. 수업 시간에 토론 주제로 "강간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였던 적이 있다. 그 근거를 말하는 것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당연하게 이유 없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 도덕 논증을 통해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근거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과 내 양심은 누가 만들었을 까라는 고민에 빠졌다. 내가 자라온 환경과 후천적인 학습으로 나의 양심이 만들어진 것은 그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 도덕성의 근원은 보편적 도덕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 존재임에 틀림없으며 다른 것에 자신의 존재를 의존하지 않는 필연적 존재인, 하나님만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 양심적으로 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럼 무신론자들의 양심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말해보자. 유명한 변증론가 윌리엄 레인 크리에그의 말을 인용하면 "무신론자들은 도덕을 객관적 토대가 없는 환영으로 규정하고 단지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이 말인 즉 그들이 판단하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없고 본성에 의지한다는 점이다. 본성에 의지한다고 그들의 삶에서 선함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무신론자 중에도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많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주변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된 주관적인 도덕성일 뿐이다. 독일 나치시대 학살을 주도한 독일군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들은 상관이 시키는 대로, 법이 명령하는 대로 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본다면 ‘생각없음’, ‘무사유’가 악의 평범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무신론자들의 도덕적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며 무사유로부터 비롯되었고,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논증을 통해 객관적인 도덕성의 출처를 알며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의 후천적인 학습으로 만들어진 기준과 논리적 판단성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흔들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점을 깨달았다.

**제목: 동성애, 과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동성혼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성령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다고 주장) 이들은 성경에 완전성을 부여한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성애에 근거한 결혼제도를 변치 않는 규례로 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주의(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임) 입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 바울의 인간의 타락성 설명 중 동성애 강조, 고린도전서의 ‘탐색’, ‘남색’하는 자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죄를 받게 된다는 증거를 통해 동성애에 반대를 한다. 반면 자유주의(이성과 문화에 근거를 두어 동성혼을 지지)는 현대의 문화, 예술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동성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친동성애 신학자들의 의견이 참신한데 첫째 동성애자에 대한 바울의 정죄는 본성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고 둘째 동성애 금지는 시대와 문화에 제한되는 것이며 현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에 있다. 즉, 바울의 동성애 비판을 모든 세대에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자 보듯 처벌하며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과연 국가나 단체가 성경적 결혼관,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동성혼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억압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칸트도 이에 대해 도덕이 정치보다 앞서야 하고 국가권력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에 따른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동성혼이 틀렸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의 19장 말씀을 통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보존해야 할 결혼 제도임을 강조하셨고 또한 말라가 선지자는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경건한 자손을 얻는 출산에 있다고 말한 점에 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은 출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창세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통해 최초의 결혼제도가 이성 간의 결혼임을 통해 하나님의 결혼관은 이성 간의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바라보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르실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욕구라는 것은 인간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식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며 육신에 따른 본능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나쁜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끊어낼 수가 있는데 “너희 중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성경 속에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인물이 나오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죄값을 다 받게 되며 창조 이후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일부일처혼임을 알려주신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성 간의 결혼이 합당하며 동성애 또한 일부다처제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벗어나야 하는 죄성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인간의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판단되었다고 생각했던 관점이 완전히 깨지고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 동성애 또한 당연한 죄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 변증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준을 세우고 당위성을 보여주려고 발악하는지 느낀다. 서로의 환경을 탓하며 동성애가 잘못된 게 아님을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 강이 윗줄기에서 아래로 흐르며, 계절이 우주의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현상처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질서로 이루어진 세상을 지으셨다.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순리에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현상일 것이다. 동성애가 자연스러운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물줄기가 아래서 위로 흐르는 영상을 보여주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의심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쳐다보는 안좋은 시선에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비판한다. 이 챕터를 읽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이를 반박할 논리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느낀다.

**제목: 헤렘 사건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완벽성”**

하나님은 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완전하게 전멸시키신 것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볼 수 있는 것일까? 여호수아서의 헤렘전쟁은 하나님의 마음이 잔인하게 변하여 가나안 부족들을 죽이라고 한 것일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으로부터 아픔을 느끼셨다.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우상숭베 등 인간의 죄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이 있었던 것임이 확실하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부모님께서 꾸짖음을 보고 부모님의 성품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헤렘을 이해하기 전 하나님의 전쟁에는 순서, 패턴이 있다. 첫 번째로 전투 없이 통과하는 것.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에서의 자손과 롯의 자손이 거주하던 지역에선 전쟁을 하지말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 전쟁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는 분이며 무조건적인 진멸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화친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모리 왕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여 빼앗은 것이 아닌 화친을 먼저 제안하셨고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공격을 한다면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의 경우 여자와 유아, 육축들은 죽이지 못하게 명령하신 민수기의 말씀으로 보아 모든 생명체를 몰살시키는 무자비한 전쟁광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 쫓아냄이다.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닌 그들을 그 타락한 땅에서 쫓아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 우선이었다. 네 번째로 진멸전쟁이다. 이는 독일의 무자비한 살인사건과는 다르게 가나안 모든 지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한 무차별 전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자비한 전쟁광이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가? 헤렘 사건을 오해하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헤렘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서 다룬 네가지 정복 패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 무차별적 진멸, 일반명령이 아닌 제한된 명령이라는 점이다.

구약의 특정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성격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면 안된다.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국가이니 모압이 멸망할 때도 아파하셨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요나 선지자의 국수주의를 비판하시기도 하셨다.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진멸을 당할 수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그 사랑을 체험한지 몇 달 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동에서 1학년을 보내고 군대를 갔다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없었고 육신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삶의 목표와 꿈 또한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보내신 “소명”을 구해야 할 분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헤렘”사건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 또한 완벽하신 그 분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 뿐이다. 이렇게 헤렘 전쟁의 자세한 분석을 통해 그 분의 완벽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제목: Why JESUS CHRIST(왜 예수인가)**

왜 우리는 수 많은 종교와 세계관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그리고 난 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그 진리를 알기는 한 것인가. 우선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 믿고 있는 신에 대해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각 종교는 달라보여도 궁극적으로 같은 신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장님과 코끼리의 비유, 등산로의 비유를 통해 서로 다르지만 표현이 다르며 틀린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신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편적 신관을 통해 각 종교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교들을 바라본다면 이런 비유들을 할 수 있겠지만 종교들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 유일하며 다른 신은 없다는 관점이 생기고 소통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진리의 파편들을 가지지만 진리의 전체를 갖지는 못한다”고 정리한다.

각 종교의 천국 세계관을 비교해보자.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천국이란 남성들을 위한 쾌락이 만연한 곳이며 여성들은 수단에 불과하고 도덕적 완벽성이란 찾아볼 수 없다. 불교는 윤회사상이며 이 또한 여성은 극락에 갈 수 없다며 여성을 차별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힌두교의 사상은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전생의 업보로 보는 인과응보의 관점에 있다. 종교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절대적 기준의 도덕성이 존재하는 가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다른 종교들은 선행을 통해 자력구원을 강조하는데 비해, 기독교는 죄를 이긴 거룩함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을 통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이 종교성을 넘어서는 삶과 연결되는 특징이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상이 대부분이다. 자신의 육신을 버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닌 신적인 존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종교를 믿는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인간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 신적인 존재로 우러러 보는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닌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다. 예수님을 통해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되는 것인가. 율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인간의 삶을 살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의 모습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만물에게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생각한다.